

부산·울산에 약 8.6조원 규모 기업투자

- 기회발전특구 5차 지정, 부산·울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·변경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2.5.(목) 부산시, 울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·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.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·재정 지원, 정주여건 개선,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.

- ① (부산광역시) 데이터센터, R&D센터 등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강서구에 1개 특구 37.1만평을 신규 지정
- ② (울산광역시) 조선,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동구, 북구에 2개 특구 총 22.4만평을 신규 지정하고, 지정되어 있는 3개 특구는 기업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 24.2만평을 확대

이번에 지정·변경된 부산·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의 기업이 약 8.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,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,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.

기회발전특구는 시·도별 면적상한(광역시: 150만평, 도:200만평)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,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. 금번 울산의 경우,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·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초과*했다.

* (既 지정면적) 127만평 + (금번 지정·변경 면적) 46.6만평 = 총 173.6만평

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 특구가 있으며, 현재 약 33조원의 투자가 진행중에 있다.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, `26년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&D 사업(`26년, 42억원)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계속 지원(`26년 41.7억원)한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봉석 (044-203-4420)
	지역경제진흥과	담당자	사무관	최선헌 (044-203-4405)
	지방시대위원회	책임자	과 장	이길준 (044-251-3126)
	과학산업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기호 (044-251-3139)

참고 1

제5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

지역(입지)		분야	면적(만평)	지정·변경 여부
부산	강서구(부산에코델타시티)	데이터센터 등	37.1	지정
	남구·북구·동구 (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)	기업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 변경 : 37.5만평 → 55.4만평		변경
울산	울주군(온산국가산업단지)	기업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 변경 : 42.8만평 → 45.9만평		변경
	남구(울산신항, 배후단지)	기업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 변경 : 7.7만평 → 10.9만평		변경
	북구(이화일반산업단지)	조선	10.2	지정
	동구·북구(자동차일반산업단지)	자동차 부품	12.2	지정

참고 2

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(26.2월 기준)



5차 부산(강서구) / 울산(북구, 동구)